

2024. 4. 4.(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02-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

박재형

02-2133-5362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www.seoul.go.kr>
(고시공고)

서울시, 민관협력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성과에 인센티브 부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 성장 지원
- 참여기업에 3년간 매년 성과에 따른 보상, 맞춤형 컨설팅 등 혜택 부여
-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참여기업 15여 곳 모집, 25일(목) 접수 마감
- 시(市), 사회적경제기업 안정적인 성장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할 것

- 서울시가 SK그룹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와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ocial Progress Credit)’을 추진한다.
-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프로젝트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성과를 ▲제품·서비스 ▲내부공정(고용) ▲외부공정 ▲환경, 4가지 분야에서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결과에 비례하여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서울시는 참여기업을 모집, 교육하고 사회성과를 측정해 사업개발비를 지급한다. 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은 취약계층 고용 소득 성과, 자원소비 절감 등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 체계 지원과 함께 금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작년 11월, SK그룹과 ‘약자동행 실천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참여기업이 창출한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받아 지속적인 투자 및 인재 유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민간자본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번에 선발하는 기업은 15개 내외이며,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 절차는 5월 2일까지 1차 서류전형, 5월 10일까지 2차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별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해결 방법의 혁신성,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 선발된 기업은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는 5월 중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교육을 받고 평가 전문 기관을 통해 전년도 성과를 측정한다. 사회성과 측정 결과에 기반해서 산출한 화폐가치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 측정 교육은 집합교육과 개별교육으로 진행한다. 집합교육은 5월 말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평가 이해, 측정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개별교육은 6월 부터 실제 기업별로 측정을 진행하면서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 이외에도 참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성과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재무·홍보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센티브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찾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매진하고, 새로운 투자와 우수 인재 유입으로 사회적기업의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자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에서 고시·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전자우편(kairos16@seoul.go.kr)으로 보내면 된다.
 -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전화 02-2133-5393으로 하면 된다.
-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며,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서비스 분야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하는 A기업은 한 해 동안 취약아동 등에게 시장가격이 1만원인 갈비탕을 무료로 20,000개 제공하였다. 이 경우 A기업의 사회성과는 2억원이며, 확인된 성과에 일정비율(7.5%)을 곱하여 해당 금액(1500만원)을 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내부공정(고용)

사회적기업B는 일반회사에서 취업할 경우 월100만원을 수령했던 고령자 10명을 고용하여 200만원의 급여를 한 해 동안 지급하였다. 이 경우 B기업의 사회성과는 한 해동안 증가한 10명의 소득증가분인 1.2억원이며, 확인된 성과에 일정비율(7.5%)을 곱하여 해당 금액(900만원)을 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외부공정(공정무역 등)

커피를 유통하는 C회사는 저개발국 원두 생산자에게 기존 국제 시장가격인 1kg당 단가(1만원)보다 높은 가격(2만원)에 공정무역 원두를 10,000kg을 구입하였다. 이 경우 거래량(10,000kg)에 비례하여 원두생산자에게 지불한 댓가인 1억원이 사회성과이며, 확인된 성과에 일정비율(7.5%)를 곱하여 해당 금액(750만원)을 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환경

폐청소기에서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업D는 20만원에 거래되는, 중고 청소기 배터리를 분리하여 업사이클링을 통해 연간 1000개의 배터리를 판매하였다. 이 경우 D기업의 사회성과는 재사용을 통해 자원소비를 절감한 성과인 2억원이며, 확인된 성과에 일정비율(7.5%)를 곱하여 해당 금액(1500만원)을 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